

At the Borderline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내가 ‘정체성’이라는 이슈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건 영국에서 사진 유학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내게는 사진 공부도, 외국 생활도 처음이었는데, ‘이방인으로서의 삶’, 그것도 한국과는 아주 다른 서구 문화의 중심에서 살게 되면서 ‘개인의 정체성’이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그 개인이 ‘이방인’일 경우에 그 정체성은 더더욱 주류 문화의 고정관념(Stereotype)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라는 발견을 하게 되었다. 가령, 내가 영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나의 문화적 배경, 외모적 특성 등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그들에게 익숙한 성향(조용한, 순종적인, 요리를 잘하는, 부지런한, 연약한 등등)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양, 혹은 동양 여성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키워드는 본격적으로 나를 사로잡았고, 영국에서 내가 경험한 ‘동양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진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클럽겐키(Clubgenki)’는 런던 소호의 한 펍(영국식 술집)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사교 모임이다. 일본어로 ‘겐키(Genki)’는 우리말로 ‘안녕’을 의미하는데, 런던이라는 외로운 도시 속에서 이 클럽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동서양의 문화를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수 개월간 나 자신이 그 클럽의 멤버가 되어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서로 처음 만나는 시선 속에 담긴 풍부한 내러티브였다. 서투른 영어를 구사하는 동양 소녀들과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서양 남성들 사이의 대화와 만남은 이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사고에서 파생된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회화에서 보이는 남녀의 시선의 교환이 화가의 관찰과 상상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클럽겐키(Clubgenki)’ 시리즈에서는 영화 같은 강렬한 조명을 이용해서 실제 상황의 긴장과 서스펜스를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클럽겐키(Clubgenki)’와 ‘접경(Bordering North Korea)’은 겉으로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오리엔탈리즘’을 모티브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클럽겐키(Clubgenki)’ 작업이 동양 여성을 바라보는 서구 문화의 시선을 이미지 속에 반영했다면, ‘접경(Bordering North Korea)’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 역시, 동양을 미지의 세계로 대상화하는 서구 문명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영국에서 나는 서구 미디어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북한이 실체와는 떨어진 호기심의 대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서, 한국에서는 통일 전망대들을 찾아다니며 마주 보이는 북한의 풍경을 촬영했는데, 그 사진들 속에 북한의 선전 문구들을 영문 그대로 삽입함으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이국적인 대상이 되어버린 북한의 비극적 현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

이방인으로서 경험한 타인의 시선은 지금껏 내 작업의 모티브가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내 사진 속 대상이 인물이건 풍경이건 간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고, 또한 그 대상에 내 자신을 이입시키는 과정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 때로는 긴박함으로, 때로는 연민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들 속에 암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

각을 한다. 가령, *'Another Country'*는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North Korea: Another Country'*에서 영감을 받아, 더 정확하게는 그 서문에 나오는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의 글 속에 등장하는 비발도(나는 경계선상에 있는 누구라도 비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를 찾아 진행하게 된 작업이지만, 어느 새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쫓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이다.

이미지의 역할이 다양하겠지만, 이 사진집을 통해, 관객들이 내가 고민하고 경험했던 주제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주고, 공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08년 4월

이 정